



‘살아있는 비너스’ 엘리슨 래퍼 방한

“장애는 마음에 있을 뿐... 꿈 이룰 수 있어요”

‘살아있는 비너스’로 불리는 영국의 여성 예술가 엘리슨 래퍼(41)는 24일 “장애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뛰어난 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후 6주만에 버림받은 인생

그는 양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기형으로 태어나 세계적 조각화가 겸 사진작가로 활약중이며 경기도가 오는 27~30일 경기영어마을 파주 캠프에서 개최하는 ‘영 챌린저 포럼(Young Challenger Forum)’ 참석 위해 한국을 찾았다.

지 않고 언젠가(어려움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생의 목표에 대해 “우선 아들 패리스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뒤 “나에 대해 예술가로서보다는 장애를 먼저 보는 경향이 많지만 ‘예술가인데 단지 장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를 극복한 자신의 삶과 불굴의 의지에 대해 특강한 뒤 5월1일 출국할 예정이다.

경기도 예술마을서 특별 사진전

래퍼는 생후 6주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다 22세에 결혼한 그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9개월만에 헤어지는 아픔까지 겪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5월25일까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엘리슨 래퍼의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김인식 감독, 유소년 야구 기금 쾌척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을 이끈 김인식(한화) 감독이 포상금 일부를 유소년 야구 기금으로 전달했다.



김인식 감독은 24일 오전 WBC 주장 이종범과 함께 도곡동 야구회관을 방문,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포상금에서 각출한 8천100만원을 유소년 야구장 건립기금으로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전달했다.

타이거 우즈, 뉴질랜드 134m ‘번지점프’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명성에 걸맞게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협곡 번지 점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보았다.



자신의 황금 콤비 캐디인 뉴질랜드 출신 스티브 윌리엄스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우즈는 23일 윌리엄스와 함께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 부근에 있는 네비스 하이어 와이어 번지 점프장을 찾아 네비스 강 상공 134m 높이에 걸린 케이틀 카 플랫폼에서 두 차례나 자신의 몸을 허공으로 내던졌다.

네비스 번지 점프는 케이틀카로 협곡의 중간지점으로 이동해 뛰어내리는 것으로 케이틀이 걸린 상공에서 380m나 되던 협곡의 너비가 네비스 강 수면에 이르면 30m로 좁아져 뛰어내리는 사람들에게 협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스틸 만점의 점프장이다.

英 해리왕자 “최전방 배치 아니면 전역”

최근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찰스 왕세자의 차남 해리 왕자가 최전방 근무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역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고 영국의 주간지 메일 온 선데이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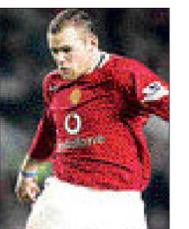
해리 왕자는 조만간 잉글랜드 남서부 도싯주의 보빙턴 캠프에서 소대장이 되기 위한 5개월간의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순차 파견될 근무지병태 산하 기갑수색부대인 ‘블루스 앤드 로열 연대’의 소대장으로 배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 타일스는 이 연대가 내년에 배치될 경우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리 왕자의 전장 배치에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형인 윌리엄 왕자가 올해말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도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맨유 루니 337억, 英 다섯번째 축구부자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팀 동료인 웨인 루니(21)가 영국에서 다섯 번째 부자 축구선수로 꼽혔다.



2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루니는 약혼녀 폴린 맥리플린의 자산을 포함해 2천만 파운드(약 337억 원)의 재산을 보유, 30세 이하 영국 축구선수 중 자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축구선수를 통틀어 부자 순위 5위에 올랐다.

한편, 영국 최고의 부자 축구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데이비드 베컴(레알 마드리드)으로 재산이 8천700만 파운드(1천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하준수씨

외규장각 다큐 제작... 美 전역 배급

조선 정조 때 강화도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각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30대 대학교수에 의해 제작돼 미국 전역에 배급된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는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하준수(32)씨.

지난 1998년 서울대 미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하씨는 2001년 캘리포니아예술학교에 입학, 2004년 졸업작품으로 ‘교래양 2495’를 만들었다.

‘교래양 2495’는 외규장각 의궤(儀軌) 중 한 권의 프랑스국립도서관 등록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 397권을 돌려받으려고 진행된 지난 10년 간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가 처음 문화재 반환과 제국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관람한 고려국보전에 전시된 작품의 출처가 모두 일본이나 영국 등 외국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였다.

하씨는 “제국주의는 점점 교묘하게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교래양 2495’는 기본적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자는 목소리지만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감상주의를 배제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래양 2495’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에서 한국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인 운파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각국 예술가의 작품을



를 배급하는 예술영화 배급기관인 미국의 ‘비디오 데이터뱅크’가 미 현지에서 이 작품을 배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씨는 “한국에도 가능한 많은 대중이 ‘돈은 안 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를 다룬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계기로 외규장각 반환 협상에도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한국 고시수준’ 英 공인중개사 됐다

前 동화은행지점장 조태현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50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고시 수준인 영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화제다.

지난 1998년 동화은행 런던 지점장으로 영국에 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뒤 그곳에 정착한 조태현(59)씨는 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인중개사(Dip Surv) 자격증을 따.

영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의 고시(考試) 수준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부동산 전문 코스인 CEM(The College of Estate Management) 3년 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1년에 4 과목씩 총 12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조씨는 2003년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힘든 과정을 견뎌 합격해 동포사회의 축하의 박수가 더 크다.



우리銀, 해남동초 꿈나무 월드컵 관람비 1억 지원

하나은행은 ‘오! 필승코리아’ 적금 판매로 조성된 축구기부금 1억 1천만원으로 해남동초등학교 ‘땅 끝마을 축구꿈나무선수단’의 독일 월드컵 관람을 지원하는 행사를 24일 본점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아드보카드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오종권 붉은악마회

장, 이갑진 축구협회 부회장, 김호근 축구협회 전무, 해남동초등학교 축구선수단 26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오! 필승코리아 적금’은 상품 가입시 붉은악마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하나는 행은 판매금액의 0.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일월드컵 기금으로 지원한다. /장필수기자 bungy@

60대 늦깎이 설계사 ‘보험왕’

LIG손해보험의 2006년 설계사 부문 대상 수상 강남본부 강남지점의 권오경(61)씨는 지난 2004년 8월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권씨는 지난해 10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보험 영업을 시작하지 2년도 안돼 보험왕에 올랐으며 작년에는 신인대상을 받기도 했다.

권씨는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영업을 했다”며 “고객이 스스로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미술대전 서예부문 두번 입선

전남청 이부형 경위

“바쁘면 바빠서 못 보는 자로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예하는 경찰관으로 소문난 전남 지방경찰청 경무과 이부형(50) 경위가 말하는 생활과 근무 방식이다.

이 경위는 바쁜 경찰업무 중에도 6년전부터 틈틈이 서예학원에 나가며 익힌 솜씨로 1번도 하기 힘들다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2번이나 입선했다.

올해가 두번째로 2004년 처음 미전에 입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경위에게 6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예가 학정(鶴亭) 이돈홍(李敦興)선생도 지원명(知天命)이 넘는 제



자에게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경위의 글씨에는 남들에게서 찾기 힘든 힘이 서려 있다”며 “직장 업무가 끝나고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도 찾아 올 정도로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미전을 코앞에 두고 터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3천명이 넘는 전경대원들의 숙식 등을 관리하는라 붓이나 먹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 이 경위는 “가족과 동료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입선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화갑 민주당 대표 獨 정부 공로 훈장



한 대표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성북

동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호르스트 러 독일연방 대통령을 대신한 미카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로부터 훈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독일대사관측은 “한 대표는 1985~1986년 독일 유학을 계기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1998년부터 6년간 ‘한·독 의원 친선협회’ 회장 역임 등 양국 국회의원간 유대를 돈독히 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정재춘(주) 디앤 대표이사)씨 장남 은호군 백창현(삼일회계법인 호남본부장·부대표)씨 장녀 은경양=29일(토) 오후 4시30분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볼룸.

▲유일광(보건대 교수)씨 차남 경완군 안정근(전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씨 차녀 지성양=29일(토) 오후 1시 백운동 서남교회.

▲이재현(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씨 차남 동훈군 서진철(금호고속 부사장)씨 장녀 지연양=29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김영순(광주 보문고 교장)씨 아들 대행(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군 박평준(전 전남도립남도대학장)씨 딸 서정(대학강사)양=29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3층 그

랜드를.

▲김재성(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소장)씨 장남 희민군 박중인씨 장녀 선하양=30일(일) 오후 1시50분 농성동 삼목회관 3층 장미홀. 피로연 28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영암휴게소 2층 연회장.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 30회 동창회(회장 김정배) 월례회=25일(화) 오후 7시 30분 초원농장 523-1218

▲복성중 제 32회 동창회(회장 정영대) 월례회=26일(수) 오후 7시 등촌. 373-1566

▲복성중 제 26회 동창회(회장 김수환) 월례회=26일(수) 오후 7시 농성동 매일세교시.

▲복성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연중) 월례회=27일(목) 오후 7시 거북. 651-8587

▲복성중 제 28회 동창회(회장 이혁) 월례회=28일(금) 오후 7시 등촌. 373-1566

▲함평 월야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태훈) 은사님 초청 모임=29일(토) 오후 6시30분 광산구 우산동 풀림버스 웨딩홀 2층 아모르홀. 011-614-3242

▲조대부고 31회 동창회(회장 정병래)=29일(토) 오후 6시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373-9218

▲대촌중앙초교 총동문회=30일(일) 오전 9시부터 대촌중앙초교. 010-9802-4488

▲영암 시중초교 제 29회 동창회(회장 강성일) 정기총회=30일(일) 오전 11시 남광주 회센터 2층 일성회집. 225-3878

중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여성이화회

(회장 보회) 월례회=26일(수) 오전 11시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김남김씨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김한규)=29일(토) 오전 11시 꿈의궁전 웨딩홀 1층 011-611-4567

향우회

▲재광 해남군 북일면 향우회(회장 한동주) 가족체육대회=30일(일) 오전 10시 광주주월중학교 운동장. 011-641-7125

알림

▲제12회 전국 초등학생 대상 금연 글짓기 공모=초등학생 2~6학년 대상으로 ‘흡연’을 주제로 원고지 7매 내외로 작성. 4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소년한국일보 사업부’. 문의 02-7244-2408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비틀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로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지회 모임=27일(목) 오후 6시30분 상촌동 마이웨딩타운 4층 연회장. 공군예비역 참여 가능. 016-630-0824

모집

▲광주월광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제 1기 예비 임파학교 참여자 모집=25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50명. 회비 4만원(부부 6만원). 문의 011-9431-1549 010-5627-0009

부음

▲이용술(전 광주과학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동제(세방)씨 차장·형제(SBC 리니어 차장)·몽재(엘가드)·희란씨 부친상 최일호(한전 서부발전)씨 부부상=발인 25일(화) 오전 10시 광주요한병원 장례식장 510-3176

▲오길순씨 별세 민병태·병삼·병률·순옥·순복·순덕씨 모친상 김기동·김용길·김화식씨 부모상=발인 25일(화)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강일근씨 별세 성복·동완(광주일보 총무국)·선덕·선희·수경·주일보 총무국)·선덕·선희·수경·주일보 총무국)

선옥씨 부친상 김길중·구현호·송원준씨 부부상=발인 26일(수) 화성고려병원 장례식장 011-9027-2833

▲한규필씨 별세 명석·성석·명숙·현주씨 부친상 노영남·김덕주씨 부부상=발인 26일(수)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박철동씨 별세 경운·경구·경석·경복·경문·경숙씨 부친상 송영욱씨 부부상=발인 26일(수)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류복남씨 별세 강은구·상구·춘옥·해영·해숙씨 모친상 차용훈·박찬주씨 부모상=발인 26일(수) 오전 9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231-890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길모 특별분양 (062) 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호진) 대표: (062) 515-4488